



## 자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성품입니다.”

###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주**님은 1841년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일리노이 주 나부에 있는 스테이크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질 시온의 모퉁잇돌”(교리와 성약 124:2)이라고 지칭하셨다. 선지자의 지시 하에, 나부는 상업, 교육 및 예술이 번창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일했고, 도시에 1에이커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 뜰에 과일과 야채를 재배했다. 도시에는 제재소, 벽돌 공장, 인쇄소, 제분소 및 제과점과 아울러, 목공소, 옹기점, 양철 공, 대장간 및 가구상 등의 상점들이 생겨났다. 나부에서 성도들은 연극, 무도회, 연주회 등을 즐길 수 있었다. 지역 사회를 통해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이 수백 명을 넘었으며 대학 설립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나부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몇몇 벽돌 공장들은 나부의 건축물의 외양을 독특하게 장식한 붉은 벽돌들을 생산해 냈다. 이러한 건물 중 하나는 선지자의 붉은 벽돌 상점이었다. 이 상점은 선지자와 제일회장단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선지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붉은 벽돌 상점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은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사랑받았던 이유인 자비로운 성품을 잘 보여준다.

제임스 리치는 개종한 자신의 누이 부부인 아그네스와 헨리 나이팅게일과 함께 나부로 왔다.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나 성과가 없자, 제임스와 헨리는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제임스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부에 재 건축된 붉은 벽돌 상점. 이 건물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무실로 또한 선지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사업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많은 교회 모임들과 사교 활동들이 이 상점에서 열렸다.

“우리는 … 작은 가게에서 한 부인에게 몇 가지 물품을 판매하는 [선지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기회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뛰어난 영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여태껏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참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헨리가 그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기를 원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했습니다. ‘스미스 씨, 혹시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둘 다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까요?’ 그는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본 후,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고국을 떠나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량을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좋습니다.’라고 말한 후 줄자를 집어들더니, ‘저를 따라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더니 저에게 줄자를 붙들고 있으라고 하고는 줄자가 다 풀릴 때까지 가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줄을 따라서 넓이가 90센티미터에 깊이가 75센티미터 가량 되는 도량을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는 우리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했으며 일이 끝났을 때 그에게 가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와서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낫군요. 자, 감사다.’

“그는 우리를 상점으로 데리고 가서 최상급 햄 또는 돼지고기를 한 덩이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민망해서 그에게 골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각자를 위해 가장 크고 질 좋은 고깃덩이와 밀가루 한 부대씩을 골라 주면서 이 정도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일을 더 해 드리겠다고 하자, 그는 ‘여러분이 만족하다면 저도 만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친절에 감사를 표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의 친절에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리치는 그 해 침례를 받고, “종종 [선지자의] 고귀한 얼굴이 하나님의 영과 권능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기록했다.<sup>1</sup>

##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갈망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갈망합니다.”<sup>2</sup>

루시 미저브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는 이 말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반복하고는 큰소리로 아멘이라고 했다.”<sup>3</sup>

1839년 7월, 선지자는 한 그룹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많은 주제에 대해 가르쳤으며, 특히 매사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지혜와 동정심을 지니도록 가르쳤다.”<sup>4</sup>

### 우리에게는 궁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모든 성도에게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기꺼이 주고, 항상 그들을 사랑하며, 필요한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악을 극복하고,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미망인을 방문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는 그러한 덕이 순수한 종교의 큰 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야고보서 1:27 참조)”<sup>5</sup>

“[교회 회원은] 이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혹은 교회에서가 아닌든, 어디서든 자신이 만나게 되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미망인과 고아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sup>6</sup>

“부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에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자애가 없다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sup>7</sup>

“고통 받는 자들의 상태와 그 고통을 덜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빵으로 그들을 먹고, 여러분의 옷으로 벌거벗은 자들을 입히고, 여러분의 관대함으로 고아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수심에 찬 미망인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태도와 친절로 낙담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여러분의 관대함으로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특히 신앙의 권속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지금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일어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며, 여러분은 모든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의인의 길과 같을 것이며, 그것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입니다.(잠언 4:18 참조)”<sup>8</sup>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의의 원리를 실천하고, 서로에게 올바른 감정을 지니고, 여러분을 위해 속박되고 슬픔과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성령은 항상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부여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난 가운데 믿음하고, 극심한 시련과 유혹을 받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권력과 영예를 열망하고 부를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낮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중재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8:26 참조)

“우리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을 낮추고, 오래 참음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견뎌야 합니다.”<sup>9</sup>

### 자애는 오래 참고 자비로우며 친절하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렇게 보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 내려갔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그런 후 그는 이웃의 덕을 평가하는 데 엄격하지 말고, 자신의 독선, 그리고 자신의 덕을 평가하는 데

엄격해지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으며, 우리가 만일 예수님처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교회와 원수들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나타내 보였다고 했으며, 우리는 온화한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참듯 서로의 잘못을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 순수한 마음과 미덕, 그리고 선량함을 키우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의 결점과 잘못에 대해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소중한지! ...”

“... 죄인들의 멋진 옷이나 화려하고 곱으로 나타나는 외모를 탐하지 마십시오. 이는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최대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곧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sup>10</sup>

“현명한 사람들은 친절로써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력을 지녀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1) 후기 성도들이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44 참조)”<sup>11</sup>

“저는 여러분의 결점에 집착하지 않으며 여러분도 저의 결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애, 즉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베드로전서 4:8 참조) 저는 많은 경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결점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영을 키워야 합니다.”<sup>12</sup>

엘리자 알 스노우는 선지자가 전한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고했다. “사람들이 저에게 최소한의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은 제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모든 거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정신을 낙담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가고 있으며 자애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건의 원리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경건의 권능과 영광은 사랑의 외투를 펼치

기 위해 편견 없는 원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멸망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메고 그들의 죄를 우리 뒤로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

“… 얼마나 많은 경우 현명한 남자와 여자들이 ‘내가 조셉 형제라면 나는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조셉 형제에게 지시를 내리려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조셉 형제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다만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단합시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공의로 데려오실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견책과 동시에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sup>13</sup>

---

### 우리는 단순한 봉사와 친절한 행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신을 통해서입니다. …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여러분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sup>14</sup>

에드윈 홀턴은 이렇게 회고했다. “1838년 어느 날, 조셉과 나이 어린 몇몇 형제들이 공놀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야외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통나무집을 짓자.’ 그리고 조셉과 청소년들은 한 미망인을 위해 통나무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늘 그런 식으로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에서 돕고자 했습니다.”<sup>15</sup>

선지자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성도들이 후에 나무라고 불리게 된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 처음 정착하던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계절이 지나면서 이곳에 정착한 형제들은 그들이 겪은 고난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후까지 나빠지자 어떤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온 가족이 오한과 말라리아열로 앓아 눕게 되었다.



“조셉과 청소년들은 한 미망인을 위해 통나무집을 짓기 시작했다.  
조셉은 늘 그런 식으로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에서 돕고자 했다.”

하이럼의 가족은 대부분이 병에 걸렸다. 우리의 막내 딸 루시도 심하게 병을 앓았으며, 사실상 그곳에 있는 주민들 중 몸이 성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조셉과 에머는 병자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었다. 계속 병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곧 병에 걸렸으며, 방 네 개로 이루어진 그들의 집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 있는 가족들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마당에 천막까지 쳐야 했다. 조셉과 에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쳤다.”<sup>16</sup>

선지자의 사촌, 존 엘 스미스는 이 시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선지자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이 사촌인 우리를 방문했다. 우리는 모두 아팠지만 어머니는 열과 학질로 고생하셨고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신 착란 상태였다. 조셉은 우리의 궁핍한 상황을 보고는 구두를 벗어 아버지에게 신겨 드렸고, 자신은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말을 타고 돌아갔다. 그

는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으며 우리가 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물품들을 보내 주었다.”<sup>17</sup>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는 이렇게 회고했다. “1840년 이른 봄 우리는 커머스로 갔는데, 그곳은 나부 시의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여전히 커머스라 불렸다. 우리는 하이람 김볼 소유로 된 집을 세 내어 살았다. …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학질과 오한, 그리고 열로 앓았으며, 겨우 기어다니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아홉째 자녀가 태어났다. 조셉은 우리를 방문하여 상황을 보자마자 우리에게 즉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우리는 살고 있던 곳의 공기, 물, 그리고 궁핍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지자 조셉의 마당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으로 가서 생활했다. 우리는 곧 건강을 되찾았으며, 자녀들도 본모습을 되찾았다. 남편은 조셉의 상점에서 일을 했으며 조셉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다.

“하루는 집을 나와 뿔로 가는 도중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에 있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내게 해 주었던 예언에 관한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그에게 집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의 집으로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이었다.”<sup>18</sup>

모사이야 엘 헨콕은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 나부에서 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올해[1841년] 여름, 나는 선지자와 처음으로 공놀이를 했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공을 치고는 그 공을 쫓아 뛰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말을 마차에 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했으며, 모두 마차를 몰고 숲으로 갔다. 나는 앞에서 말 한 마리가 끄는 포장마차를 몰았고, 선지자 조셉과 아버지는 뒤에서 마차를 몰았다. 마차는 39대였으며 우리는 나무를 모아 마차에 실었다. 마차에 나무를 싣고 나자, 조셉 형제는 막대 당기기를 하자고 했으며, 그는 자신과 겨루고 싶어하는 사람을 한 번에 한 사람씩 모두 당겨서 이겼다.

“그 후 선지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마차를 보냈으며, 나무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선



많은 사람들이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병으로 앓던 시기에,  
조셉 스미스와 에머 스미스는 병든 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그들을 간호했다.

지자가 말한 대로 했다. 우리는 병약했으며,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모두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노력했다.”<sup>19</sup>

1842년 1월 5일, 선지자는 훗날 감리 감독으로 봉사한 에드워드 헨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붉은 벽돌 상점에 있는 우리의 물건들은 꽤 좋은 편입니다. 여러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산 물건들과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물건들은 매우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가난한 형제자매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마음속으로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점은 사람들로 넘쳤고, 저는 어느 점원 못지 않게 하루 종일 계산대 뒤에 서서, 설탕과 당밀, 건포도 등이 없어서 성탄절과 새해를 만찬도 없이 보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께서 정하신 때에 승영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sup>20</sup>

##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423~435쪽과 429~432쪽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선지자 조셉 슘스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이 이야기들은 그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은 그의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친절로 인해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 426쪽 처음 세 단락을 복습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사람은 왜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사랑과 친절함 행동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몇 가지 예를 위해 426~427쪽을 참조한다.) 이러한 책임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영적인 필요 사항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은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어떤 예를 보았는가?
- 427쪽 하단에서 시작되는 단락을 읽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미덕을 더욱 잘 인식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자신의 독선, 그리고 자신의 덕을 평가하는 데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선지자 조셉은 “세상에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428쪽) 그런 반면, 그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키워야” 하며,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427~428쪽) 서로에 대해 마음을 넓게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 428쪽 다섯째 단락 전체를 읽는다. 우리는 가족을 대할 때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3:1~13; 모사이야서 4:14~16, 26~27; 이더서 12:33~34; 모로나이서 7:45~48; 교리와 성약 121:45~46

## 주

1. 제임스 리치,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1892년 3월 1일, 152~153쪽;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2. *History of the Church*, 4:227; 조셉 스미스가 십이사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0년 12월 15일,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1년 1월 1일, 258쪽; 이 편지는 *History of the Church*에 1840년 10월 19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3. 루시 미저브 스미스,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1892년 8월 1일, 471쪽.
4. *History of the Church*, 3:383;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9년 7월 2일자, 아이오와 주 몬트로스.
5. *History of the Church*, 2:229, 각주; "To the Saints Scattered Abroad"에서 발췌, *Messenger and Advocate*, 1835년 6월, 137쪽.
6. 리차드 새버리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편집인의 답장, *Times and Seasons*, 1842년 3월 15일, 732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7. *History of the Church*, 4:608; 1842년 5월 1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8. "To the Saints of God,"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실, 1842년 10월 15일, 952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9. *History of the Church*, 3:299; 현대화된 구두법;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9년 3월 20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10. *History of the Church*, 4:606~607;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4월 2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11. *History of the Church*, 6:219; 단락 구분 변경; "Pacific Innuendo"에서, 조셉 스미스의 지시 하에 작성된 기사, 1844년 2월 17일,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4년 2월 15일, 443쪽; *Times and Seasons*의 해당 호는 늦게 출판되었음.
12. *History of the Church*, 5:517; 1843년 7월 23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또한 부록 540쪽, 세 번째 항목 참조.
13. *History of the Church*, 5:24; 현대화된 철자법;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6월 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14. *History of the Church*, 5:355; 단락 구분 변경; 1843년 4월 13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15. Edwin Holden,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1892년 3월 1일, 153쪽; 현대화된 구두법.
16. Lucy Mack Smith,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년 manuscript, book 17, 7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7. 존 라이먼 스미스, *Autobiography and Diaries, 1846~1895년*, 사진 복사, 제1권, 1839년 9월 내용, 교회 기록 보관소.
18.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1878년 11월 15일, 91쪽.
19. 모사이아 라이먼 핸콕, *Autobiography*, 타자기로 친 원고, 22쪽, 교회 기록 보관소.
20. *History of the Church*, 4:492; 조셉 스미스가 에드워드 헌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2년 1월 5일, 일리노이 주 나부.